

회의실

네. 감사합니다.

그럼 다음에 또 뵙죠.

하하

외래예약 수납 Outpatient Appointment

저기요!

아까는 너~~무 죄송했어요!
어디 다치신데는 없나요?

누구시죠?

자기가 부딪쳐놓고
기억을 못내??!

아~~
아까 복도에서 부딪혔는데
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!!

푸박

아...
아까 부딪친 줄 몰랐습니다.
미안합니다.

아하하하!
마음도 넓으셔라!

이야기 나누시느라 목 아프셨을 텐데
여기 음료수 한잔하시죠!

...용건이 뭐니까?

긁

다름이 아니라...실례지만,
그 선생님이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
저도 알 수 있을까요?

?

아! 저 이상한 사람 아니군요!
가난하고 불쌍한 글쟁이입니다!!!

호호

이번에 쓸 소설 장르가 메디컬이라
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!
이렇게 부탁드려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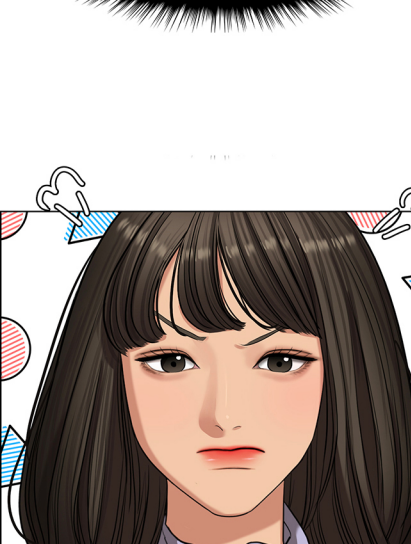
휴... 손 좀 주시죠.

네? 손은 왜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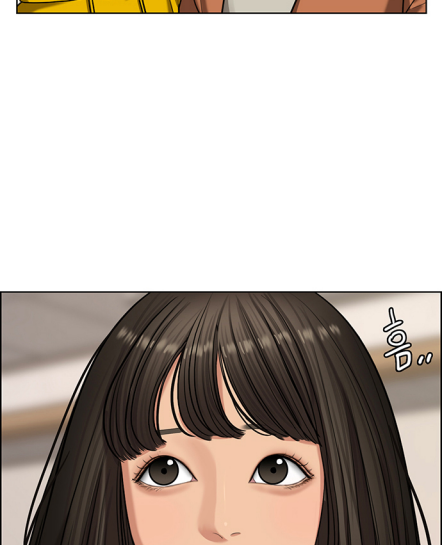


저기요!!!!
가지 마세요!!

저 이번에 꼭 등단
해야 된단 말이에요!!!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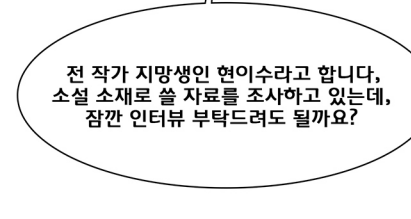
역시 잘생긴 사람들은
얼굴 값을 한다고...
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
부탁하는 데 무시할 수가 있지?!



역시 첫인상은 어디 가지 않아...
하여간 왕재수라니까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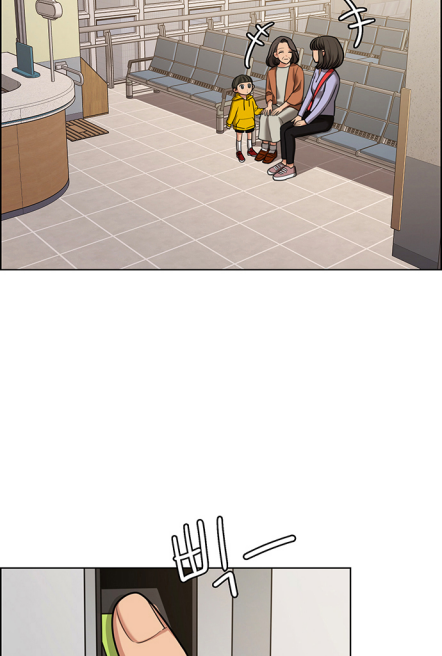


... 메디컬물이라고
꼭 의료진 인터뷰를 할 필요는 없어.
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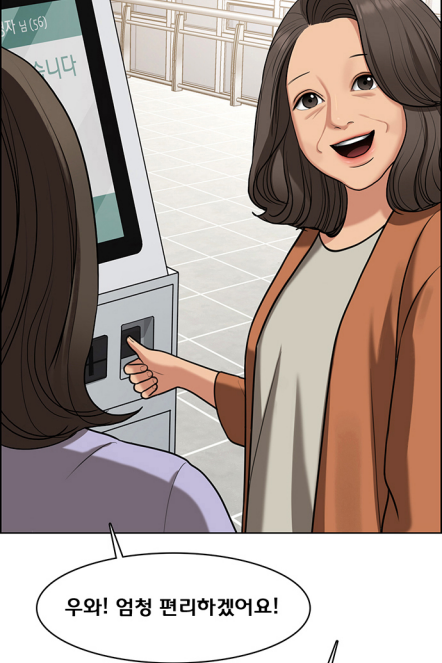


안녕하세요.

전 작가 지망생인 현이수라고 합니다,
소설 소재로 쓸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,
잠깐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될까요?



이렇게 손가락만 갖다 대면
자동으로 접수가 돼요.



우와! 엄청 편리하겠어요!

그리고 요새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
돌봄 로봇이 알아서 관리해 주니까
더 안심되고 좋은 것 같아요.



병원에 있는 로봇인데
엄청 귀엽고 똑똑해!

와 신기하다!



코로나 때문에
가뜩이나 의사 선생님도 부족한데
있으니 안심이지요.



병원 오는 게 재밌어요!



비대면 경제, 디지털 뉴딜 ..
그래!
나 이 소재로 꼭 소설을 쓸 거야!

야옹이
248
조조
룸룸